

교구장 담화문

‘은총의 100년, 감사의 100일 기도’ 를 시작하며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구는 교구 100주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목전에 두고 막바지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큰일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더욱이 하느님의 일에 있어서는 영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이 때에,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주님께서 우리 교구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100일 동안 묵상하고 감사드리기 위해 ‘은총의 100년, 감사의 100일 기도’ 를 모든 교구민과 함께 바치고자 합니다.

루카복음(10,38-42)에 보면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타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마리아를 꾸짖어 달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는 오히려 마르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에 쫓기고 걱정에서 시달린 나머지, 우리는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교구 100주년을 맞아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은총의 100년, 감사의 100일 기도’ 는 다만 교구의 10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다가올 100년을 위한 지혜와 열정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구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희망으로 응답하는 것은 교구 10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구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한 마음이 되어 이 기도를 정성껏 바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구민이 이 ‘은총의 100년, 감사의 100일 기도’ 를 바침으로써 지나온 역사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신앙의 활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고 감사를 드리며, 새 시대를 여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봉헌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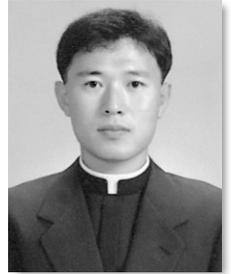
2010. 12. 8.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조 환 길 타 대 오 대 주 교

† 조 환 길 타 대 오 대 주 교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인간의 권리



이상해 스테파노 신부
가톨릭근로사회관 관장

대림 두 번째 주일이자 인권주일인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회개 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세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 안에 하느님의 고귀한 생명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하느님의 능력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대로 이 권리를 남에게서 빼앗거나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인권을 무시하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자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닌 권리가 도구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학, 자살, 낙태, 살인, 약탈, 감금, 억압, 고문, 차별 등의 형태로 인권이 유린당하며,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힘없는 사람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도리어 인권을 억압하는데 급급한 세상입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경제논리로 인권을 파괴하는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 현

실 앞에서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인권을 억압하고 권력만 탐하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비수와 같습니다.

자신의 무식함을 무기로 타인의 정당한 행동을 짓밟는 행위들 앞에서, 세상적인 부를 위해 피부가 다르고 말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동들 앞에서, 외적인 과시를 위해 다른 사람의 손발을 묶어 버리는 행동들 앞에서, 쥐꼬리만 한 권력으로 평범한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속이려는 행위들 앞에서, 하늘의 심판보다는 세상적인 심판으로 모든 것을 덮어 버리려는 행위들 앞에서, 세례자 요한은 하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목이 터지게 외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하느님의 것을 파괴하는 현장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하늘나라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소리없는 절규

박성규 엘리지오



비록 우리들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여만명의 태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사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입당성가

96 하느님 약속하신 분

화답송

◎ 주님의 시대에 정의가 꽃피게 하소서. 큰 평화가 영원히 꽃피게 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파견성가

89 주 하느님 자비로이

영성의 향기

:: 우리는 하느님의 청지기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모든 것, 즉 우리들의 시간, 재산, 건강, 지식, 기회, 인간관계 등은 모두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시간이나 재산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똑똑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누리고 쓰지만, 때가 오면 원래 주인께 셈을 해 바쳐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사람에게 첫 번째로 맡기신 일은 당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돈을 예로 들자면, 믿지 못할 사람에게 누가 재물을 맡기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이 재물은 주님 사랑의 표시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선물에 담긴 사랑은 볼 줄 모르고 돈이 생겼으니 제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선물을 유혹으로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분노와 침묵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에드윈 스탠튼이 한 번은 화가 몹시 나서 대통령에게 일러바쳤습니다. “제가 청탁을 받는다고 제 부하 하나가 험담을 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스탠튼에게 링컨은 “엄한 질책을 담은 편지를 한 장 쓰게.”하고 말했습니다. 스탠튼은 분노를 몽땅 쏟아 넣어 그 부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가지고는 대통령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링컨은 편지를 보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 편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어리둥절한 스탠튼은 “그야 그 자식한테 보내야죠!”하고 대답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그런 편지는 보내려고 쓰는 게 아니야. 여기 이 난로에 넣고 태우게. 자네 그 편지 쓰면서 화 좀 풀렸지? 나도 화났을 때 쓴 글은 다 태운다네. 이제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편지를 쓰게나.” 분노했을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쓸모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율겨은 글입니다 -

성모당 전대사 미사

• 일시: 12.8(수) 11:00

- 행사 / 모임 -

가톨릭운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 일시: 12.8(수) 14:00, 가톨릭교육원

한국 꽃미술 아트페어, 크리스마스 아트페어

• 일시: 12.11(토)~13(월), 17(금)~19(일)
• 장소: 대구 노보텔 (2.28 공원 앞)
• 주관: 갤러리 아테나-파리
• 주최: 대구대학교 전례위원회
• 문의: 010-8858-5925

떼제기도회

• 일시: 12.11(토) 20:00, 장소: 삼덕 젊은이성당

- 성소 / 피정 -

2011 교구설정 100주년기념 동계성소피정

• 대상: 중3~고2(내년 기준)
• 일시: 2011.1.4(화)~7(금) 3박4일
• 장소: 제주도 성지 도보순례
• 신청: 12.16(목)까지, 선착순: 70명
• 참가비: 33만원(1인10만원 성소담당 지원)
• 문의: 250-3071/ 010-6776-3071, 본당사무실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미사안수)

• 일시: 12.8(수) 13:00~17:00, 지도신부: 강요셉
• 문의: 삼덕성당 422-6691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토요일 15:00~18:00
• 장소: 부산 남천성당 앞 북카페
• 대상: 고등 대학생, 일반, 문의: 02)744-4702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지도신부: 최봉도)

• 일시: 1.3(월)~5(수), 1.28(화)~30(목), 2.25(금)~27(일)
3.18(금)~20(일) 14:00시작~14:00마침
•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 장소: 경북 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 문의 및 신청: 010-5613-1762/ 054)971-0722

- 모집 / 교육 -

2011년도 보육교사양성과정 수강생모집

• 모집기간: 12.1(수)~선착순
• 문의전화: 850-3056
대구가톨릭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시편성가연수(Sr.김정선,발성법(박재연) 회비:1만원
• 일시: 12.5(일) 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차동업 신부님 신앙 대강좌

• 주제: 믿음 희망 사랑의 향주삼덕을 통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삶
• 일시: 12.11(토) 19:00, 하양성당

**이병호 주교님과 함께 하는
'지상의 미사'의 공부에 초대합니다.**

• 일시: 12.21(화) 15:00
• 장소: 예수성심시녀회교육관 강당(대구 대명9동)

푸른평화예술치료겨울방학캠프

• 일시: 12.27(월)~30(목) 3박4일
• 장소: 진해 청소년 야영장
• 주관: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010-3513-2225

가톨릭근로자회관 필리핀영어캠프

• 일시: 2011.1.2(일)~31(월)
• 장소: 마닐라St.Joseph College
• 대상: 초 3~중 3 (20명, 선착순)
• 특징: 현지초등선생님 직접수업
• 문의: 253-1313/ 010-9355-5843

제37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모집

•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클럽반회
• 초·중·고: 2011.1.8(토)~30(일) 3주
* 정규학교 수업 및 홈스테이 이용
• 대·일반: 1.3(월)~2.13(일) 6주 또는 장기
• 문의: 그린피스 E&T 02)3446-4253

선교계획 자문해 드립니다.

본당 선교분과/레지오/소공동체/개인
• 신청: 한주일 전, 781-6100/ 010-3066-5971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바이올린, 플루트, POP, 천연비누·화장품만들기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IVY리그 펜살바니아 대학 제휴
유학시 학점인정 1년내 석사학위
자녀유학시경비지원, 무료어학연수기회
• 전화: 526-0111(http://tesol.cu.ac.kr)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 과정-신입생모집

가톨릭고리신학원통신신학교육부
• 원서접수: 11.8(월)~2011.2.11(금)
• 대상: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 내용: 신·구약성경 및 신학일반
• 문의: 02)745-8339(ci.catholic.ac.kr)

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신·구약입문)

• 방법: 우편학습과 온라인학습(동영상 강의)
• 원서교부: www.paulinebible.or.kr
바로로말, 성바로로서원
• 접수: 11월~2011.1.25(화), uus@pauline.or.kr
• 문의: 02)944-0819~24/0840~1(온라인학습)

- 직원 채용 -

백합어린이집 교사 채용

• 자격: 몬테소리 교육 이수자
• 문의: 010-9263-6933

- 안 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
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경태(야고보)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12월 6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2월 6일(월) 오후7시30분	꾸르실로 교육관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6일(월) 오전11시	신명성당	지속적인상체조배회 미사	12월 6일(월) 오후10시	한티순례자의집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6일(월) 오전11시	성동트리텔413호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0일(목) 오후2시	성모당

연세소아발달연구소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치료센터)

복사부 치료비 지급(비우려 제도)

매월 12명 128,000~220,000원 차등 지원

*심리, 놀이, 미술, 음악, 언어, 학습치료, ADHD 등
소장 조옥형(아내스) / 652-9000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하면 어느 곳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도우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일반이사

대표 양 말 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성가정을 위한 결혼 정보

성가정결혼상담소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지하철 입구

2484 익스프레스

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로로) 011-514-3855

여러분의 건강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삭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들안길 베거리~황금성당 사이

치질·치루·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전문의: 배선익(사도요한)

TEL: 745-6633~4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범어네거리, 수성못방향 → 300m

결혼상담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미혼, 만혼, 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 070-8827-6207
부산 - 051)817-3887~8
서울 - 02)579-3889
02)338-0788

http://mjms.co.kr